

■ 2023년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 2023년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 회의일시 : 2023년 3월 2일 (목) 11:00~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좋은 문학 작품은 그 언어를 생산한 작가의 수명보다 생명이 길고 역사적 국면마다 매번 새롭게 갱신되는 현재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래서 작고문인의 좋은 작품은 살아 있는 전통으로 현재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마련한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의 취지에도 위와 같은 판단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응모에 지원한 사업계획들을 확인하면서 돌아보고 살펴야 할 많은 한국문학유산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특히나 전국 곳곳에서 지역문화와 연동하여 한국문학의 유산을 발굴하고 돌보는 사업의 사례가 많다는 점은 감동적이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문학에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도 다채로웠다.

심사과정에서는 응모주체가 그간 얼마나 지속적으로 문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해왔는지를 살폈다.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또한 작고 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 역시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타성에 젖은 사업과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인지를 구분해야만 했다. 더불어 한국이라는 외연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도 심사한 기준이 되기도 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위 기준에 모두 모범적으로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계획된 사업 프로그램의 면면이 얼마나 오래 이 사업을 고민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심사자로서 아쉬운 것은 전체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선정된 사업들에서 제시한 응모액을 그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더군다나 가치 있는 사업의 응모가 많아 계획보다 지원 사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원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원해주신 많은 단체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문학의 중요한 영역을 돌보는 분들에게 드리는 인사이기도 하다.

2023년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심의위원 일동